

8 르포

‘청년밥심’, 회기 연화사를 방문하다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쉼터가 하나씩은 있다. 언제나 부담 없이 들를 수 있고, 마음이 항할 때면 일상을 모두 훌훌 털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곳. 근심 걱정을 털고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곳. 누군가에게 그곳은 집일 수도, 이름 모를 공원일 수도, 심지어는 절이 될 수도 있다. 우리신문은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 대학생 대상으로 무료 사찰 음식을 제공해 온 연화사를 찾았다. 연화사는 일상에 지친 우리를 위한 ‘쉼터’로 알맞은 곳이었다.

서울캠에서 짧은 거리를 걸어 도착한 연화사는 도심 속에 자그마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연화사는 경희의료원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절의 모습은 빌라와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에서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자아냈다. 그와 함께 따뜻하게 맞아 주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방문했음에도 포근함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청년밥심, “든든하게 건강식 먹을 수 있어”

연화사에서는 많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청년밥심 행사로 건강한 한 끼를 즐기고 있었다. 청년밥심은 경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청년밥심 행사는 매주 수요일, 경희대 학생들이 따로 돈을 내지 않고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화사 인스타그램에서 청년밥심 게시글을 통해 매주 선착순 50명의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양현숙(회계세무학 2019) 씨는 “청년밥심이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용해 왔다”며 “음식도 집밥 느낌이고 건강식인데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배장훈(회계세무학 2019) 씨 역시 “자취하면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해 먹을 일이 잘 없다”며 “여기에 와서 밥을 먹으니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든든해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불교 동아리인 경불회 소속의 백수정(한의학 2021) 씨도 청년밥심으로 건강식을 즐긴다. 그는 “경불회를 통해서 청년밥심도 알게 됐다”며 “일주일에 한 끼지만 영양이 고루 갖춰지고 건강하게 한 끼를 먹게 돼서 매주 수요일이 기대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연화사의 주지스님인 묘장스님



①연화사의 전각 대웅보전의 모습. ②행사장에서 학생들이 무료음식을 공양받고 있다. ③지난 4일 제공된 식사다. ④ 묘장스님(좌측)은 청년밥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추찬호 기자)

은 우리학교 요정으로 한 번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학생들에게 마치 “집밥을 먹는 것 같아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학생들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상의 이유로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

년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외식 문화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건강한 식단, 집밥 같은 한 끼를 먹으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더 불어 “마음이 지칠 땐 편안하고 고요한 사찰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자 청년밥심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청년 밥심의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애 씨는 “묘장스님께서 학

도한 때부터 음식을 오래 담당해 왔다”며 “스님께서 위낙 인심이 좋은 분이셔서 먹거리가 생기면 나눔회 장터라는 것을 열어서 행인들에게 다 내놓으신다”고 말했다. 또 “청년밥심 역시 연화사가 대학교 옆에 있다 보니 진행되고 있다”며 “포전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가져오다 보니 제철음식을 먹을 수 있어 학생들이 더욱 신선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밥심 행사는 학기 중에 진행

되며 오는 11일 마지막 식사를 남겨 두고 있다. 다만 김 씨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스님께서 뜻이 있으신 만큼 내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 속 쉼터, 연화사

지금의 연화사는 청년밥심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한 쉼터가 될 수 있길 소망하는 공간이다. 묘장스님은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연화사가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연화사가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마음을 나누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강조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방문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여유와 평화를 되찾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연화사는 절이지만 경희대 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불교 강좌, 청년회 활동, 문화 공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절 내에 카페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을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과제를 할 수 있다.

양현숙 씨는 “캠퍼스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항상 시끌벅적한데 연화사에 오면 항상 잔잔하고 포근한 느낌”이라며 연화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역사 속의 한 부분, 연화사

연화사는 조선 시대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 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찰이다. 처음에는 폐비 윤 씨의 묘가 있던 회릉 근처에 자리 잡아 폐비 윤 씨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로서 기능했다. 이후 경종과 선의왕후의 묘인 의릉이 세워지면서 의릉의 능침사로 지정되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능침사란 승하한 왕과 왕후의 명복을 정기적으로 빌기 위해 재나 예물을 올리는 사찰이다.

연화사에도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임오군란으로 인해 한때 소실됐다. 그리고 한 차례 복원됐지만 6.25 전쟁 때 다시 한 번 폐허가 됐다. 그 후 다시 복원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화사 주변부는 원래 도심이 아니었지만, 도시화와 함께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 하지만 연화사는 계속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